

## 국경을 넘어 사랑의 인술을 전하다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강우석 교수(앞줄 오른쪽)를 비롯한 의료진이 라오스 판아락티야 평빠 씨(앞줄 가운데)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난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굳은 신념에서 재단의 의료복지 사업이 시작됐다. 인근에 병원이 없어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무의촌에 병원을 설립하고,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봉사 활동도 펼쳤다. 또 돈이 없어서 치료받기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외에도 2009년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현지에서 치료받지 못한 환자 네 명을 서울아산병원으로 초청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해 2022년까지 114명의 해외 환자를 지원해왔다.

### 소리를 잃은 라오스 환자에 도움의 손길

올해 2월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라오스 우돔싸이 지역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며 취약지역 주민들을 도왔다. 의사, 간호사, 약사 등 36명이 참가해 1,98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이 시급한 세 명의 현지 환자를 파악했다. 그 중 두 명은 지난 4월 서울아산병원과 강릉아산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리고 지난 8월 판아락티야 평빠(Panyaluckthoyar Tongpor) 씨가 수술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초청됐다.

27세의 판아락티야 평빠 씨는 라오



캄보디아 룯 스러 아이 씨(오른쪽 네 번째)의 퇴원을 축하하는 강릉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휘 교수(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보배 교수(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의료진.



서울아산병원 직원의료봉사단은 지난 2월 라오스 우돔싸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판아락타야 땡빠 씨를 포함한 세 명의 현지 환자를 초청했다.

스에서도 소수민족인 몽족으로 태어나 산악지대에서 화전으로 생활하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 어릴 때 오른쪽 귀에 고름이 생겼는데, 산 속에 살다보니 병원은커녕 약도 구하지 못하고 방치한 탓에 심각한 중이염으로 발전해 오른쪽 귀의 청력을 잃었다. 성인이 되어 교사로 직장생활을 하며 가정도 꾸렸지만, 왼쪽 귀에도 이상이 생겼다. 통증과 고름이 생겨 병원을 방문했더니 이미 고막이 찢어졌다는 것이었다. 월급이 적어 학교에서 거주하면서 채소를 가꾸어 생활하는 그에게는 치료를 받을만한 여력이 없었다. 결국 2013년 양측만성중이염으로 양쪽 청력을 다 잃었다.

판아락타야 땡빠 씨는 금년 8월 3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이 비인후과 강우석 교수의 집도로 염증을 제거하고 고막을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다. 아산재단은 치료비와 항공료 등 경비 전액을 지원했다. 수술 후 원내 기숙사에 체류하며 추가적으로 외래 치료를 받은 그는 ‘10년 넘게 소리를 듣지 못하고 통증에 시달렸는데, 깨끗이 치료해준 서울아산병원과 의료진에 감사한다’는 인사를 남기고 9월 7일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했다.

## 캄보디아 선천성


## 심장병 환자에게 새 삶을

강릉아산병원도 도움이 손길을 더했다. 심장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캄보디아의 룯 스러 아임(Rith Sro Em) 씨를 초청해 수술을

지원했다. 24세의 룯 스러 아임 씨는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근근이 생활하는 형편으로는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의료봉사활동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한 강릉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휘 교수가 룯 스러 아임 씨를 진료하고 수술이 필요해 강릉아산병원으로 초청했다.

룰 스러 아임 씨는 선천적으로 심장을 분리하는 벽에 구멍이 생기는 심실중격결손증을 앓고 있었다. 게다가 심장 우심실이 정상 이상으로 많이 비대해져 있어 혈류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방치하면 폐렴과 심부전을 초래할 수 있었지만 수술 한 번으로 완치 가능한 질환이기도 했다. 금년 8월 3일 입국한 룯 스러 아임 씨는 정밀검사를 거쳐 8월 7일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보배 교수의 집도로 심실 사이 벽의 구멍을 막고 우심실 유출로를 넓혀주는 수술을 받았다.

룰 스러 아임 씨는 “수술 받기 전에는 숨이 차고 피곤했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고 건강해져 이전부터 하고 싶었던 미용 일을 배우고 싶다”며 “정성껏 돌봐주신 강릉아산병원 의사선생님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아산재단과 산하병원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글 편집부